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45)

芙蓉楷禪師小參 (부용해선사소참) ②

諸仁者 若也於斯體究 的不虧人
제인자 약야어사체구 적불휴인
若也不肯承當 向後 深恐費力
약야불긍승당 향후 심공비력
山僧 行業無取 忝主山門
산승 행업무취 첨주산문
豈可坐費常住 頓忘先聖付囑
기가좌비상주 돈망선성부촉

모든 어진이여 만약 여기서 몸소 겪어 궁구하면 적실히 사람을 이즈러뜨리지 않거니와(근본에 딱 계합할 것이나)
만약 즐겨 감당하지 않는다면 향후라도 힘만 낭비할까 두렵노라.
산승(부용선사 자신)은 행업에 취할 게 없으나 욕되게도 산문의 주인이 되었으니
어찌 앉아서 상주물을 허비하며 역대 조사·성인의 부촉을 까맣게 잊으리오.

今者 輒效古人 爲住持體例 與諸人議定
금자 첩효고인 위주지체례 여제인의정
更不下山 不赴齋 不發化主
경불하산 불부재 불발화주
唯將本院蔣課 一歲所得
유장본원장과 일세소득
均作三百六十分 日取一分用之
균작삼백육십분 일취일분용지
更不隨人添減 可以飯則作飯
경불수인첨감 가이비반즉작반
천외지청산 과색 이반지유천 무성
嶺上 猿啼 露濕中宵之月
영상 원체 로습중소지월
林間 鶴唳 風回淸曉之松
림간 학루 풍회청효지송
春風起而枯木 龍吟 秋葉墮而寒林 華發
춘풍기이고목 용음 추엽조이한림 화발
玉階 鋪苔蘚之紋 人面 帶烟霞之色
옥진 포태선지문 인면 대연하지색
音塵寂爾 消息沈然 一味蕭條 無可趣向
음진적이 소식침연 일미소조 무가취향

(까니를 지나)새 손님이 찾아오면 차로 대접하되 다시 점심을 짓지말라.
오직 한 찻간을 마련해 스스로 가서 취해 쓰게 할지니 힘써 인연을 줄이고 한 길로 도 닦기에 힘쓸지어다.
또 하물며 생활해 나갈 계책이 구족하고 경치도 성글지 않음에 있어서랴.
꽃은 피어 방긋웃고 새 소리 즐거운데 나무 말 긴 울음에 돌 소가 달음질하네 하늘 가 푸른 산은 아득히 멀어 귓가에 흐르는 물 소리없고
원숭이 울음소리 산 마루를 넘는데
깊은 밤 달빛은 이슬에 젖네
숲 속 학의 긴 울음소리에
새벽 맑은 바람 솔가지를 흔들고
봄 바람 건듯부니 고목은 용처럼 울고 가을 낙엽지니 찬 가지엔 눈 꽃이 만발했네

"한해 소득 360등분 고루 나눠 하루쓰고 옛 사람 법도·예절 본받아 몸소 궁구하리"

作飯不足則作粥 作粥不足則作米湯
작반부족즉작죽 작죽부족즉작미탕

이제 문득 옛 사람이 주지된 법도와 예절을 본받아서 대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정하노니 다시는 산에서 내려가지 않을 것이며 재에 나아가지도 않고 화주도 내지 않으리라.
오직 본원 장원의 소득물을 가지고 한해의 소득으로 하여 360등분으로 고루 나눠 하루에 한 몫을 취해쓰고 다시 사람수의 더하고 덜함에 따라 고치지 않고 가히 밥을 준비할만 하면 밥을 짓고 밥 짓기에 부족하면 죽을 끓이고 죽 끓이기에 부족하면 미음을 지을 것이다.

新到相見 茶湯而已 更不煎點
신도상견 다탕이이 경부전점
惟置一茶堂 自去取用
유치일다당 자거취용
務要省緣 專一辦道
무요성연 전일판도
又況話計具足 風景 不疎
우황활계구족 풍경 불소
花解笑 鳥能啼 木馬長鳴 石牛善走彫
화해소 조능체 목마장명 석우선주
天外之靑山 寡色 耳畔之流泉 無聲
옥계단 섬돌엔 이끼 무늬가 곱고
얼굴엔 노을 빛 물들어라
사방이 고요한데 어느 소식 들리는가
나 홀로 호젓이 즐기노니 예서 더 취할게 무엇이랴.

山僧 今日 向諸人面前
산승 금일 향제인면전
說家門 已是不着便
설가문 이시불착편
豈可更去殿堂入室 拈槌竪拂
기가경거승당입실 염추수불
東喝西棒 張眉努目 如鬪肉相似
동할서방 장미로목 여간병상사
不惟屈沈上座 況亦孤負先聖
불유굴침상좌 황역고부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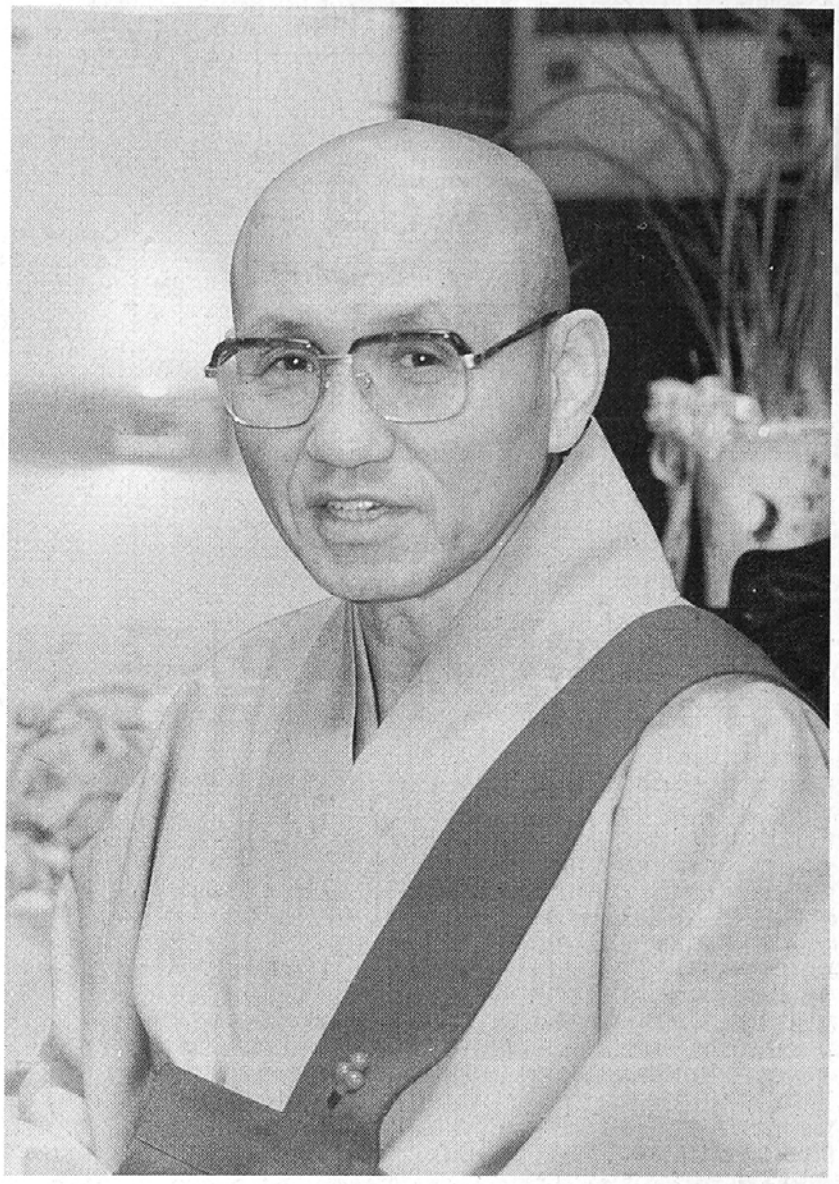
산승이 오는 여러분 면전을 향해 가문의 종풍을 설한것이 이미 붙일곳조차 없으니 어찌 가히 다시 법당에 오르고 선방에 들어가 추(북채)를 잡고 불자를 세우며 (임제·덕산처럼) 동으로 할, 서로 방을 치며 눈을 치뜨고 부릅떠서 간질병 걸린 사람처럼 하리오 (그것은) 상좌를 기를 못펴게 할뿐아니라 하물며 선성까지도 욕보 저바리는게 된다.

龍眼

지상법석

"부처행은 세간 고통을

원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약력
· 1954년 · 56년 금오스님 계사로 사미 · 비구계 수지
· 현재 경실련 공동대표, 자비의전화 총재,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평통 자문위상임위원, 공추불회장 평물협회장 승가학원이사장 등.

불교인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불은 인식의 전환인가, 아니면 행동의 전환인가' '수행을 해야 성불한다고 하는데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가' '경전에서는 무량겁동안 부처님을 친견하고 공양한 후에 성불한다고 하는데, 나는 금생에 성불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성불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먼저 경전에서 성불에 관한 실례를 찾아보면, 〈열반경〉에서는 3천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나투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금생에 성불한 것이 아니라, 무량원겁 전에 이미 불도를 성취했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나투고, 영원불멸하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반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래성불하신 불신(佛身)은 일 개인이 아니라, 우주전체이므로 영원하듯 모든 중생이 그대로 부처님의 몸이며,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닫고 부처로서 행동할 성품과 능력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환언하면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인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법화경〉의 「여래수량품」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본래 구원겁에 성불한 본불,

> 금강석을 용광로에 넣고 재련하면 순금이 흘러 나오듯 자신 믿고 법을 믿고 게으르지 않으면 성불
>
> "윤회 세계인 6범과 해탈 세계인 4성은 자유의지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구원실성의 본불인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방편으로써 사바세계에 인간의 몸으로 나투어 성불했으며, 영원불멸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방편으로 열반에 들었갔다고 하였으며, 「방편품」에서는 유연심만 갖더라도, 산란한 마음으로 불탑에 예배하거나, 사소한 신행을 하거나 아이들이 놀 때 모래로 불탑을 만들지라도 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각경〉의 「금강장보살장」에서는 일체 부처님의 묘한 원각의 마음은 본래 보리와 열반이 없으며, 또한 성불과 성불하지 못함도 없으며, 망령된 윤회와 윤회가 아닌 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불교 근본교리의 모태가 되는 〈아함경〉에서는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요. '만일 여래가 세상에 출세해도 출세하지 않아도 이 인연법은 상주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인연법은 '연기(緣起)의 이법(理法)' 을 뜻하는데, 이것이 교리적 발전을 거듭하여 대승불교의 '법신상주설 구원성불사상 본래성불사상' 으로 정립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체존재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인연에 의해 생멸변화하고 이합집산하므로 독자성·항존성이 없고, 반드시 상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무자성' 의 속성을 띄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무자성' 을 〈반야경〉계통에서는 '공' 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공' 역시 일체존재는 독자성·항존성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자기의 존재성이 다른 것에 있다는 말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물의 존재성이 다른 것에 의존해 있다면, 역으로 이 세상 일체의 존재성이 나에게도 포함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태대사는 "〈법화경〉은 〈반야경〉의 '공사상' 을 뒤집어서 '성구(性具)사상' 으로 표현했다" 고 해석하였습니다. 나의 독자성이 없이 텅비어 있다는 것이 '공사상' 이며, 일체의 존재성이 나에게 구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구사상' 입니다. 따라서 〈법화경〉이 〈반야경〉의 '공사상' 을 역으로 나타내었다고 본 것입니다.
불교가 '연기(緣起)', '무자성(無自性)', '공(空)', '성구(性具)' 등을 가르치는 것은 일체존재를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거나 세상의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명을 지혜로 바꾸고 윤회를 벗어나 해탈열반에 들기 위해서입니다. 불교는 낮은 수행의 단계로 부터 가장 완전한 부처의 단계까지를 열 가지로 나눕니다. 10계(十界), 즉 지옥(地獄), 아귀(餓鬼), 축생(畜生), 아수라(阿修羅), 인간(人間), 천상(天上),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 불(佛)입니다. 이 10계에 '성구사상' 을 역으로 나타내었다고 본 것입니다.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대적광전·법상·경상
· 의왕시(대원사):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법당 수미단 옹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대웅전 명부전 문짝
· 성남(범룡사):대웅전 문짝 닫집
· 충무(삼덕사):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대웅전 수미단 옹각
· 포천(약천사):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대웅전수미단 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6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정신·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 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 관 단 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세상에 복용 기아·공복감이 없다.
· 눈,귀,혀,목,얼굴·자연탕·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월말단체수련·선관단체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받고 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노 엔리로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수련장 사원시 용현면 와룡산 용남선원
인내 ☎ (0593)34-1115-6

척추교정·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목·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장삼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유풍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404-9521
팩스:(02)266-2679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4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내 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찾·습·니·다
전통불화 배우실 분
전통불교미술의 맥을 이어 기도·정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대 佛事의 새 영역을 개척하고자 불광미술원이 새 가족을 찾습니다.
■ 성별 : 남
■ 연령 : 만 18세~25세(군필 또는 면제자)
■ 학력 : 제한 없음
■ 기타 : 신심 돈독한 불자
■ 문의 : (02) 477-9178
불광불교미술원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한남상사
Tel: 02)795-4083, Fax: 02)792-9659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02)279-2715
팩스:(02)275-3739

신설 포교당 주석(운영)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불은의 도시 대구에 부처님의 집이 비어있습니다. ○○스님께서 발심하여 포교당 불사를 완료하였으나 급히 스리랑카에 유학하실 기회가 생겨서 출국하시고 없는 관계로 주석(운영)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주소■ 대구 직할시 달서구 상인동 1443-1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有)
■전화■ 053-638-0067 053-556-8429 (1~4시까지)

허공에 서려 묻혀진 세월
●젊은 날의 외로움이 이 작은 책에 서리서리 서려져 저 허공에 메아리처 울려 퍼지리리●
스님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한 월남유사로서, 한 젊은이의 외로움과 공허가 여기 담겨져 있다.
지금 어느 누가 이 젊은이만큼의 넓은 눈과 넓은 마음을 가졌을까?
당신이 젊은이라면, 이 책은 당신이 모르는 또다른 당신을 얘기한 것이다.
호반출판사 ☎ 02)3673-0224
※ 교보·영풍문고에 있습니다. 정가 5,000원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 철저한 1:1 「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전원졸업목표 ➡(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개별지도용)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 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